

우리 3강이고요.

음운 변동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의 내용을 보면 음운 변동 이야기해놓고

자음동화 이야기해주고 구개음화 이야기해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거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다 이게 음운변동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있는 굳이, 꽃, 부엌, 곡물, 숨는다, 맘머느리까지 해서

질문 첫 번째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변했느냐를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뭘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교체 현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인접한 음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동화현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체변화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체변화는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평파열음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예 중에서

자체변화 일어나는 걸 빨리 골라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꽃, 부엌.

애네들이 인접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아니면 5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질문 1을 보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자음의 영향을 받았다.

두 번째는 모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동화현상을 따졌을 때 나눠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를 나눠주는 이 기준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행동화 있고 역행동화가 있고 상호동화가 있어요.

선생님, 상호동화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이 상호동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결과를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성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으로는 뭐가 먼저 발생한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애가 애로 변한 걸 1번으로 잡고

이거에 의해서 애가 2번으로 변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ㄹ이 ㄱ이나 ㅂ이나 ㄷ이나, 그러니까 뭐죠?

평과열음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ㄱ이나 ㄷ이나 ㅂ이나 이런 거 뒤에 오게 되면

예를 들어 또 하나 써볼까요?

섭리 같은 거.

이것도 발음 어떻게 됩니까?

섬니로 간단 말이에요.

둘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뒤에 있는 거 ㄹ이 먼저 ㄴ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ㅂ을 ㅁ으로 바꿔주는

비음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건데

이러한 변화 과정은 과정으로는 교체 교체 해서

두 번 벌어졌다고 보는 거지만

동화로 따지게 되면 이거를 상호동화라고 해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두 개가 다 변한 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호동화라고 하고 그 외 나머지 순행과 역행,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걸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이런 방향을 따져주는 그러한 기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음운의 성질에 따라서,

음운 종류라고 할까요?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니까?

자음동화 있고 그다음에 모음동화 있고 그다음에 자모음 동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잡아줄 때가 있어요.

이 자음동화 같은 경우가 바로 비음화, 유음화를 들어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 모음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음동화는 이거 출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음 역행동화라고 해서

움라우트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자면, 고기를 들어서 괴기로 발음한다든지

떡이다를 맥이다로 발음한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모음이 앞에 영향을 주고

뒤에 나와 있는 |모음이 앞에 영향을 주어서

앞예를 시, 또는 키로 변해주게 만든 동화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이 현상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고기, 떡이다, 라고 발음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음동화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적어주고

모음동화다, 라고 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비표준 발음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 자모음 동화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구개음화의 경우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ㄷ이나 ㅌ이라고 하는 받침이 뒤로 넘어갔을 때

|모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건데

즉 모음에 의해서 자음이 변화된 거기 때문에 동화현상으로 보고 있고

그걸 이렇게 자모음 동화라고 잡아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기 줄 때

보기에 자음동화, 모음동화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를 빼버렸어.

애 설명 안 해.

그러면 무슨 생각이냐, 여기에 있는 이 굳이 같은 경우는

자음동화로 보는 경우도 있고 모음동화로 보는 경우도 또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동화를 나눠주는 기준이 딱 하나만은 아니다.

이거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동화의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놈이랑 변화 받는 놈이 똑같이 변하면 완전동화.

그렇진 않다.

그러면 불완전 동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 거의 언급 안 합니다.

그런데 동화를 나눠주는 기준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중에 주로 문제를 내는 건 이런 거 문제 하나 풀어봤었고

또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 이야기했고

모음의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런 용어 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음이 자음의 영향을 주는 경우는 비음화, 유음화죠?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바로 구개음화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이 문제에서는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구개음화가 아닌 비음화나 유음화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즉 우리 3번 아니면 5번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3번에 굳이, 애가 구개음화에 해당하는 거니까 애가 빠지게 되죠.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가보죠.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인데

이건 하나씩 적어보고 끝낼까요?

가랑닙이죠?

다음.

갑찌다죠.

다음.

수타다죠.

다음.

이거 지난 번에도 했는데 그땡널차죠.

다음.

서른여덟로 가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변화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놈인데요.

이놈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잘 찾을 것 같아.

애 뭐예요?

첨가.

다음, 음절의 끝소리 교체.

다음, 애는 뭐 있어요?

탈락.

뭐 있어요?

된소리되기 교체.

그다음 애 봅시다.

축약.

더하기 ㄴ 덧났죠? 그러면 첨가.

애는 어떤 변화 있죠?

ㄴ 첨가 더하기 서른여덟에서 ㅂ이 빠졌죠? 탈락.

애 이야기해볼게요.

애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술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ㅎ 탈락.

제일 눈에 보이는 건 사실 그거죠.

ㅎ 탈락하고 ㅌ 넘어가면 되겠군요.

이래서 중요한 거야.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ㅎ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 ㅎ 탈락은 언제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발음.

ㅎ이 빠질 때 이럴 때를 우리는 ㅎ 탈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애는 초성에 있는 ㅇ이 빠지는 그건 금시초문.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찌다 이런 발음이 됐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는 술하다가 맞지만 먼저 변해야 될 건 애죠.

받침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한다?

ㄷ으로 먼저 변하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그리고 ㅇ하고 ㄷ이 다시 한번 축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타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3번이, 어 이거 탈락 한번 벌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애는 무슨 현상이 벌어진 거다?

음절의 끝소리인 교체에다 순차적으로 그다음 뭐까지?

축약까지 벌어진 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애네들은 지금 각각 변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애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변하는 과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애네는 한 번에 벌어지는 플러스 표시를 해놨다면

애 같은 경우에는 과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정답은 이런 걸 다 알고 보면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ㄹ하고 ㄷ, 그러면 축약하고 첨가.

정확하게 잡아줬어요.

19번 가봅시다.

19번은 이것도 애정하는 문제.

이것도 여러분이 참 실수 잘해요.

모음의 변화에서 모음이 하나가 빠지는 거

그다음에 합쳐지는 축약,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모음 변화로 4개를 잡아냈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기다.

연결어미 어 했더니 기어가 됐다.

살피다에서 살피가 됐다.

다음 배우다.

어에서 배워가 됐다.

발음 표시죠?

다음에 나서다.

어에서 나서.

집을 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중에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

정답을 따져볼게요.

ㅣ 랑, 단모음이죠?

ㅓ 랑, 단모음이죠?

하나가 되었어요.

이중모음 ㅓ가 됐죠?

다음 ㅓ랑, 단모음이죠?

ㅓ 랑, 단모음이죠?

합쳐져서 ㅓ라고 하는 이중모음이 됐죠.

정답은 ㄴ하고 ㄷ이에요.

실수 잘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이런 거.

선생님, 이것도 이중모음 나왔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면 그냥 겨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축약이었으면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중모음이 되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얘가 기여,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애는 축약이 벌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벌어졌어요, 선생님?

첨가.

이걸 반모음 첨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에 뭐가 첨가됐냐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놈이 첨가됐을 때

| 반모음으로 출발한 어는 여가 나오죠.

그래서 애는 첨가 현상입니다.

반모음 첨가 현상이고.

그다음 애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기이 헛갈리는 거지 애는 쉽죠.

애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탈락해서 동음탈락 현상 하나 벌어진 거니까

결국 이놈, 이놈, 이놈 중에 애를 딱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 반모음 첨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수 많이 했어, 이 문제 실제로.

애들 많이 틀렸어요.

20번 어렵지 않죠.

듣직한, 만형, 좋다 전부 다 축약이네요.

그다음에 B에서는 장문이나 해돋이나 비음화나 구개음화 벌어진 거니까

이때는 교체 현상 벌어진 거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21번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좋겠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22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음운변동과 관련된 학습지의 일부인데

기과 니에 들어가야 될 걸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맨입 기이고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이 또 알 거예요.

애도 비슷해.

다음, 장음 표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애네 보고 빨리 ㄱ집어내면 되죠?

무슨 현상? 첨가.

무슨 현상? 교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유음화 현상까지는 잡아주고요.

다음 애는요? 탈락.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번에 ㄱ에는 맨입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변동.

즉 이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걸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답지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첨가 현상 일어나는 거 1번, 논일.

ㄴ 첨가 들어가죠?

2번, 닿은, 탈락이죠?

3번, 칼날, 유음화죠?

4번, 논일 ㄴ 첨가 일어났습니다.

5번에 닿은, 탈락이죠.

그러면 우리 후보가 되는 건 1번 아니면 4번이죠.

다음, ㄴ에는 설날을 발음할 때의 교체,

그다음에 좋은을 발음할 때의 탈락 현상이

함께 벌어지는 걸 찾아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 답지에 늦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ㄴ 첨가 일어났고 앞에 ㄱ에 ㄴ으로 교체 현상 벌어지고

다시 한번 비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가 없어요? 탈락은 없죠.

그러면 1번 지워야 되죠.

우리 후보가 되는 게 4번이었지 않습니까?

4번을 보면 닳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발음할 때

이거를 달른이라고 발음해버리면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많이 발음 안 해서 그럴 텐데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발음해요?

달른 맛잖아.

왜냐하면 ㄹ하고 ㅇ이 나왔는데 탈락이 이때 ㅇ이 탈락합니다.

그러면 ㄹ하고 ㄴ이 만나면 아까 설명.

유음화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예요.

ㄹ이 힘이 세요.

그러나 간혹가다가 예외적으로 ㄴ이 이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ㄴ이 이기면 어떤 발음이 나오는 거야?

단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닥이 단는다, 이렇게 합니까?

그거보다는 바닥이 달는다, 라고 해서 유음화를 시켜주는 게

훨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발음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유음화 현상이 탈락과 유음화 현상 일어났으니까

정답은 달른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그다음 23번 보도록 하죠.

23번 문제는 뭐예요?

네 가지의 변동 현상 중에 하나의 유형.

이거 오해하면 안 돼.

한 번만 벌어졌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한 가지 유형만 벌어졌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또 실수하면 안 돼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 한 가지 유형만 일어나는 거.

즉 교체가 세 번, 네 번 벌어져도 그건 한 가지 유형만인 거고.

정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꺾다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받침의 경우가 ㄱ이 ㄱ으로 바뀌는 교체 한 번.

음절의 끝소리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ㄷ이 된소리되기에 의해서 교체 벌어지는 두 번.

이렇게 해서 교체 교체.

정답이죠.

그러면 나머지 건 어떻게 돼?

2번은 뭐야?

쭉 이야기해주세요.

첨가, 교체.

ㄴ 첨가, 앞에 있는 ㄱ이 비음화, 교체죠?

다음 3번은요?

ㄴ 첨가, 역시나 ㄱ이 색 할 때의 색이 비음화.

그래서 첨가, 교체.

다음 4번은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죠?

ㅅ 탈락.

그리고 비이 흥과 줄어드는 축약.

그래서 가파다.

다음 5번은 어떻게 될까?

이거 발음할 때 여러분, 설익다,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까?

서리따.

다행히 여기에 답지에는 발음이 써 있어.

이미 답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거 만약에 그냥 읽어봐, 라고 하면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걸 규칙으로 외우고 있어야죠.

왜 안 됩니까?

실질 형태소.

그냥 연습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애는 어떤 조건에 마땅하냐.

이 설이라고 하는 게 접두사.

그래서 설익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완벽하게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두사고 뒤에 있는 익은 어근이에요.

그러면 애는 파생어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뭐 했습니까?

첨가 현상에서 합성어 또는 파생어일 때 앞에는 받침이 있고

뒤에가 ㄹ, ㅈ, ㅋ, ㆁ, ㅍ, ㅍ일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ㄴ이 덧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애는 발음이 설닉따였다가

다시 한번 유음화가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답지는 첨가하고 교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가볼까요?

24번 갑니다.

보기의 ㄱ은 홑받침 또는 쌍받침이

7개의 자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문제 잘 보셔야 되는 게

ㄱ하고 ㄴ이 비음화는, 이라는 단서 뒤에 들어가 있어요.

즉 ㄱ이나 ㄴ 다음에 비음화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ㄱ의 경우에는

일단 음절의 끝소리 벌어지고 비음화 벌어지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답지, 깎는, ㅈ이 ㄱ으로 음절의 끝소리 되고

그다음에 비음화 벌어진 거 맞죠.

2번은 어때요? 해당합니까?

끝 ㅌ 받침이 ㄷ으로 바뀌어야죠?

음절의 끝소리 벌어지고 나서 물에 의해서, ㅁ에 의해서 ㅂ으로 바뀌죠.

ㄴ으로 바뀌죠?

음절의 끝소리 맞습니다.

다음 3번, 듣는, 맞습니까?

안 되죠.

애는 음절의 끝소리 없이 그냥 뒤에 있는 ㄴ에 의해

앞에 있는 ㄷ이 비음화 한 번 벌어지죠, 안 돼요.

조건 안 맞아.

4번, 솟내는 ㅊ이 ㄷ으로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 뒤에 있는 ㄴ에 의해서

다시 ㄴ으로 바뀝니다.

애는 조건에 맞죠.

알마당.

그냥 음절의 끝소리 말고 끝나죠.

음절의 끝소리만 씁니다.

그러면 후보가 되는 게 1번, 2번, 4번이네요.

그다음에 ㄴ은 탈락이 벌어져야죠.

자음군 단순화 현상 벌어지고 나서 비음화인 걸 찾아보지요.

1번 답지에 보게 되면 ㄴ에 흡만에서는 뭐가 빠집니까?

ㄴ이 빠지고 ㄱ이 남아 있을 때 뒤에 있는 ㅁ에 의해서 바뀌었죠.

정답입니다.

그런 거 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예문 중에 뭐가 더 있어요?

찾아보세요.

았자, 안 되죠?

옳는, 되죠.

옳는 같은 경우는 ㅍ이 남고.

애는 과정이 더 있어요.

옳는은 과정이 더 있어요, 사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발음이

애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애만 남아요.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가 한 번 또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비음화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애 같은 경우에는 ㄴ이 벌어진 다음에 ㄱ이 벌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비음화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게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는 과정이 이렇게 3단계를 걸쳐서 간다는 거.

그다음 2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번에 보게 되면, 이 문제도 좋아요.

왜냐하면 용언의 활용과 관련돼서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낫다 하고 낡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 같은 경우에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선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용언에서.

우리 동사나 형용사 공부할 때

규칙용언, 불규칙용언은 그냥 빠삭하게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ㅅ 불규칙용언하고 ㅎ 불규칙용언이라는 게 각각 있기 때문에
애네들이 ㅅ 불규칙인지 ㅎ 불규칙인지를 챙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용언 하는 시간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둘 중에 ㅅ 불규칙 활용하는 어간은 뭐냐,

둘 중에 ㅎ 불규칙 활용하는 어간은 뭐냐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불규칙 용언을 찾기 위해서는 모음 어미를 더합니다.

그거로 판단하면 되는 거였어요.

어 붙어요, 형태 변화 없어요.

어 붙어요, 형태 변화 있어요.

ㅅ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 어미가 결합했을 때

ㅅ이 탈락하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는 어간불규칙이라고 잡죠.

ㅎ 불규칙 가볼까요?

ㅎ 불규칙, 아 붙어요. 놓아.

주의하셔야 되는 건 불규칙 용언을 따질 때는

음운변화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형태를 보는 거죠.

애가 음운변화를 따질 때는 ㅎ을 발음하지 않아요.

노아,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러나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애는 규칙 활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당초 아도 안 와.

아도 안 오고 이상한 이가 와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ㅎ은 탈락하면서 모음 어미도 아나 어와 같은 대표용이 아닌 게 오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파래가 형성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똑같이 어간이 ㅎ으로 끝났다고 했지만

애는 모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 변화가 없고

애는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ㅅ 불규칙은 어간 불규칙 쪽이고

ㅎ 불규칙은 어간, 어미 불규칙에 해당합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품사편할 때 다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일단 애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낫다와 낳다는 ㅅ 불규칙이냐 ㅎ 불규칙이냐 아니면 규칙용언이냐.

이거 물어봅니다.

낫다는요?

어떻게 돼요?

결과물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다음 애는요?

결과물 뭐예요?

아이를 낳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네요.

위에 있는 낫다 같은 경우에는 ㅅ 불규칙.

그리고 애는 그냥 규칙 용언인 걸 확인해볼 수 있는 거였고

규칙 활용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애는요?

실제 발음도 나아, 라고 하는 거고 ㅅ을 탈락하니까

실제 표기가 발음과 일치하는 거고요.

애는 발음상 나아, 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실제 표기는 발음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걸 찾아서 답 쓰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팁.

애는 병이 낫다 그러면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이 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아를 붙였다고 치면 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병이 나아, 이렇게 쓰진 않죠.

동음탈락 현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병이 나.

이렇게 쓰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애는 동음탈락 한 번 더하면 안 됩니까?

즉 애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더 축약은 못 하게 해요, 이때는.

이렇게는 못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병이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이 나아간다는 의미고

병이 나, 이러면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겁니까, 둘은.

그래서 이런 거는 팁으로 하나 더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가보죠.

25번, 보기의 ㄱ부터 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교해보는 거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답지랑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쓰지 않고 그냥 갈게요.

ㄱ에 보면, 갑도에서처럼 음절 끝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변동.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이 못 온다.

자음군 단순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막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ㄴ, ㄱ 중에서 뭐가 빠졌다?

ㄴ이 빠지고 ㄱ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1번 맞는 이야기네요.

그다음 2번에 보면, 입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변동.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3학년 문제쯤 되니까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표도 안 봤잖아요.

표도 안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향을 줘서 ㄴ이 ㅂ에 영향을 주어서 ㅂ이 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ㅂ이 ㅁ으로 바뀐 거는 뭐를 유지한 상태라는 겁니까?

조음의 위치는 유지되는 상태.

뭐만 바뀌었다? 조음 방법만.

그 이야기에요, 지금 2번.

인접하는 자음하고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그러면 조음 방법이 같아졌다는 이야기는 이 ㄴ이 인접하는 음운인 ㄴ이

애가 애랑 같아지는 ㅁ.

그러니까 이 라인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같은 비음으로.

조음 방법이 일치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2번에서 이 표를 만약 연상 못 하면 조음 방법이 같아져?

설명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기에 예도 없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6월이면 평가원인데

1학년, 2학년 때는 보기에 막 일일이 비음화는 어찌고저찌고

이런 게 설명에 나오는 걸 풀다가 이제 3학년쯤 되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3번 보시면, 자음 교체된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왜 자음이 교체됐습니까? 물약이.

ㄹ 첨가 아니에요?

ㄹ 첨가라는 게 있었냐, 없었잖아요.

ㄹ 첨가라는 게 어디 있어.

결과물만 보고 나서 ㄹ이 덧났네.

그런데 왜 여기에 교체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못하는 친구들이야.

ㄴ이 덧났다가 ㄴ이 ㄹ에 의해서 유음화가 생겨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4번에 팔죽.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ㄴ이나 ㄷ도 역시 각각

ㅈ이나 ㅊ이 올 수 없기 때문에 ㄷ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5번 답지에 보게 되면, 자음 축약된 음운변동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ㄹ에 이것도 참 오해하면 안 돼요.

레고 레몬 루피는 원래 뭐가 빠지는 거라고 했죠?

앞엿것이 빠지는 겁니다.

가령 이게 붙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요?

앞엿것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극찌 앓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글찌 앓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는 예외가 들어가죠?

ㄱ으로 시작한 어미거든요.

그러면 이때 예외가 걸립니다.

그래서 레고 레몬 루피는 원래 원칙상은 뭐가 빠진다?

앞엿것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예외에 걸려들어서 이제 이때 뒤엿것이 빠지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ㄹ은 남았고 여기에 있는 ㄱ은

다시 된소리되기를 통해서 ㄱ이 되는 것뿐이지

오해하면 안 돼요.

ㄱ이 넘어갔구나.

그래서 축약됐구나.

ㄱ과 ㄱ이 합쳐져서 ㄲ 되는 축약 이런 거 없잖아요.

거센소리, 자음 축약은 딱 거센소리되기밖에 없는 거야.

된소리되기가 축약이 아니야.

된소리 되는 건 교체 현상이죠.

그러니까 애는 이미 빠져서 없어진 거고요.

애는 그냥 애가 교체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축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27번.

선생님이 매우 애정하는 문제.

이 문제가 나오므로 음운변동 문제가 뻔하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또 한 단계 발전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문제였어요.

실제 음운 개수를 물어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본 원리인데.

여러분, 이거 물어보잖아요.

음운의 개수 몇 개?

2개.

음운의 개수 몇 개?

3개.

선생님, 왜요?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기본 정의가 뭐냐면,

음운이라고 하는 건 소리죠.

형태가 아니에요.

음운의 정의는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소리를 따졌을 때

초성의 ㅇ은 어차피 형태적으로 넣어주는 것뿐이지

발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개라고 하는 이유는 모음만 딱 따져서 두 개라고 음운을 잡아주죠.

그런데 애도 마찬가지로 않습니까?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결국 하나가 빠지게 돼 있어요.

애를 발음할 때 값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발음하는 게 아니거든요.

값, 이렇게 처리된다는 건 결국 애는 빠진다는 이야기.

결국 하나, 둘, 셋 해서 소리 나는 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애가 소리와 형태가 일치하냐 안 하냐.

형태상은 이러한테 실제 음운의 개수는 몇 개가 줄었다 어쨌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죠.

지금 애는 형태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죠, 음운 개수가.

형태상 음운이라고 꼭 넣어줘야 돼요.

형태상 음운은 4개.

그러나 소리의 음운, 소리는 3개.

형태나 소리 언급 안 하고 그냥 음운이 나왔다?

그건 소리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가 그러하니까.

27번 가보도록 합니다.

27번 보게 되면,

하나만 쓸게요.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탈락, 축약이 일어난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었다고 했어요.

발음은 옆에 써 있죠?

흐카고래요.

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르이 빠져요.

탈락 맞습니까?

축약.

ㄱ하고 ㅎ이 줄어요.

축약 맞습니까?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됐대요?

두 개 줄었대요.

보세요.

형태상의 음운 개수는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야 돼?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

그런데 소리의 음운 개수가 어떻게 된 거야?

결국 위쪽 라인은 다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 두 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건 생각하지 말고요.

실제 음운 개수가 줄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 아니죠.

ㄹ하고 ㄱ 두 개가 빠진 거죠.

이 자리의 개수가 없어진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ㄹ은 빠져서 없어진 거고

ㄱ은 ㅎ이랑 하나가 되어서 줄어든 거고.

그래서 어쨌든 1번 답지의 설명은 정확하게 맞아요.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서 음운의 개수는 두 개 줄었다.

그러면 다 정리해볼까요?

탈락과 축약 그다음에 -2.

맞습니까?

애 가볼게요.

어떻게 발음됩니까?

저녕년기로 가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애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ㄴ 첨가 한번 벌어지죠.

첨가에 의해서 ㄱ이 ㅇ으로 바뀌는 교체가 벌어집니다.

첨가랑 교체가 벌어졌고 음운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세요.

맞아요?

받침에 있는 ㅇ은 소리가 나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애가 대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초성에 있는 ㅇ은 없었던 자리인데 들어왔잖아요.

하나가 늘었죠?

음운의 개수가 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답이 헛갈리지 않죠.

함정에 안 빠지잖아.

다음 부엌문도 가볼게요.

이렇게 돼.

이거는 과정이 뭐예요?

일단 ㅋ이 ㄱ으로 먼저 바뀌어야죠.

음절의 끝소리, 교체.

그리고 ㄱ이 다시 ㅁ에 의해서 비음화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체만 두 번 벌어져요.

그런데 음운의 개수 변화는 없죠.

똑같죠.

없지 가보겠습니다.

언찌.

애는 어떤 거?

일단 탈락 벌어지죠.

ㅈ이 없어져야죠.

그리고 ㅈ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탈락과 교체가 벌어지고 음운의 개수는 어떻게 된 거야?

두 개잖아요.

이거 두 개가 하나가 없어진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1.

음운의 개수 -1.

넙네 가보겠습니다.

애는 어떻게 되죠? 넙네.

맞아요?

넙네 아닌가.

레고 레몬 루피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 게 빠진 거죠.

그러면 앞에 이 르이 남아 있는데

뒤에 있는 ㄴ에 유음화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널레가 맞는 거죠.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널 계열의 합성어, 파생어면 내가 넘이라고 했어.

넓죽하다, 넓둥글다. 이런 경우가 예외예요.

그러면 애는 일단은 탈락 현상 한번 벌어졌어요.

탈락 현상 벌어졌고 유음화가 벌어졌습니다.

역시나 탈락과 교체.

그러면 애도 개수로 따지게 되면 -1.

하나만 빠진 거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왜 2, 3, 4, 5가 틀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2번은 음운의 개수가 2개 늘었대.

1개 늘었어.

3번, 교체가 1번 일어났대.

교체 2번 일어났어.

4번, 교체와 축약이 일어났대.

탈락 일어났어.

5번,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었대.

1개만 줄었어.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결국 최종 음운의 개수까지 판단하게 하는 복합적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보고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좋은 문제였고요.

다음요.

28번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1번이 답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물기 없는 마른기침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애를 발음을 뭐라고 하래?

바든소리.

왜요?

왜 이걸 바든소리하고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발다, 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거든,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형식이에요, 실질이에요?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형식 형태소일 땐 어떻게 하라고요?

손님, 앞에서 변화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면 앞에 있는 받침이 그냥 넘어와요.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소리는 자체 변화해 주고 넘어온 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냥 ㅌ 딱 넘어가서 받은 소리, 라고 발음해줘야 맞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날 더하기 으로가 붙었다.

또 날 더하기 알이 붙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 발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나뉘었을 때 애는 형식, 애는 실질.

그러면 발음 어떻게 된다?

나트로, 넘어가야죠?

그런데 애는 자체 변화해 줍니다.

ㄷ으로 해주고 넘어가는 거니까 날알.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형식이나 실질이나의 차이 딱 잘 보세요.

3번 답지에 어금니 실질이죠?

그러면 아퍼금니 이럴 수 없죠.

자체 변화 압어금니.

ㅁ 넘어갔을 때 아버금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4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었을 때 웃은 실질이고 음은 형식이죠.

웃, 웃다의 어근.

음 명사화 접미사.

선생님이 이 용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법 다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진 뭐라고요?

웃은 용언의 어근, 실질.

그다음에 음은 명사화 접미사.

그러면 형식이죠?

그래서 실질 앞에서는 자체 변화해주고 넘어와.

그러면 ㄷ으로 바뀐 다음에 넘어오겠죠?

그러나 ㅅ은 뒤에 나오는 것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거두슴으로 받음이 된다는 거죠.

5번에 보게 되면 조사 음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바틀.

이거 바출이라고 구개음화 시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조건이 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갑니다.

29번.

수능 문제였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었죠.

이거 닳는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ㄱ부터 ㄷ까지를 따졌는데 ㄱ하고 ㄷ은 ㄴ 첨가가 일어나죠.

그런데 애는 첨가가 없잖아요.

그냥 무슨 현상? ㅎ 날리고 유음화 벌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가보도록 하죠.

30번 보기의 ㄱ부터 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조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네 가지의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라고 했었는데

ㄱ은 무슨 현상이에요?

우선은 트이 ㄷ으로 바뀐 뒤 ㄴ에 의해서 비음화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벌써 두 번 벌어졌죠.

그러면 다 적어볼까요?

일단은 음절의 끝소리.

그다음에 ㄴ에 의해서 비음화.

더불어서 뭐도 변했어요?

트이 뒤에 이랑 만나게 돼요.

여기에 있는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구개음화 벌어졌죠? 구개음화.

그다음 ㉠, ㄴ뉘리.

여기에는 일단 ㅅ 빠졌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 탈락 현상.

그다음에 ㄷ이 된소리화됐습니다.

교체 된소리되기.

다음 ㉡, 이팍씩이에요.

그러면 ㅂ하고 ㅎ 줄었으니까 축약 거센소리 되기.

다음 ㅅ이 ㄱ 뒤에 왔기 때문에 사실 된소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된소리되기, 교체.

마지막 ㉢, 애는 과정이네요.

ㄴ이 첨가됩니다.

먼저 ㄴ 첨가.

동시에 이 ㅅ이 음절의 끝소리 ㄷ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 끝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첨가된 ㄴ이 음절의 끝소리로 바뀐 ㄷ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뒤에 과정으로 뭐가 나오니까?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지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ㄱ에서 ㅌ이 ㄴ,

그다음에 ㄹ에서 ㅅ이 ㄴ으로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교체의 회수는 둘 다 두 번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ㄴ에서 ㄱ이 ㄱ으로 바뀌는 건

탈락 한 번만 벌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고.

다음, ㅅ이 ㅅ으로 변한 거

이것도 음운변동은 그냥 교체 한 번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죠.

회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교체가 탈락이 몇 번 벌여졌느냐, 라고 하는

음운변동의 회수를 신경 쓰게 하는 문제였어요.

31번.

1번 답지, ㄱ하고 ㄴ.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벌여졌다고 이야기했어요.

보면, ㄱ은 다 축약이죠.

그런데 ㄴ의 경우에는 ㅎ 탈락 현상 벌어진 거죠.

다음에 2번, 앞 음절 종성에 따라서

뒤 음절 초성이 된소리로 벌어진다고 했었는데

ㄱ은 이미 1번 답지에서 축약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안 되고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값다, ㅍ 받침에서 ㅂ 받침으로 바뀐 거 음절의 끝소리.

즉 7개로 제한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4번 답지, 또 언급했어.

조음 위치냐 조음 방법이나.

지금 이 걸모양이 ㅌ 받침이 ㄴ으로 바뀐 건

결국 비음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조음 방법의 변화였던 거죠.

뒤 음절 초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뒤 음절 초성이면 ㄹ이기 때문에

ㄹ하고 ㄴ은 전부 다 비음이기 때문에 조음 방법 맞죠.

그래서 조음 위치가 아닌 조음 방법이고.

다음 5번 답지, 앓고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즉 탈락 현상.

자음군 단순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ㄹ 같은 경우에는 ㄱ이 ㄱ으로 가는 건

ㄱ 하나 빠진,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체 변화입니다.

다음 32번.

여기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닌데

표에서 비표준 발음하고 표준 발음을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내용을 잘 읽어보면서 풀어야 돼.

ㄱ의 비표준 발음과, 이렇게 했어.

이거 실수하는 경우도 있더라.

비표준, 그다음에 표준.

표준이 뒤에 있어요.

비표준은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ㄱ의 비표준 발음하고

ㄴ의 표준 발음 방식만 실수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 발음이니까 짤레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짬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음 많이 하죠?

정말 짬네? 이렇게.

근본 없는 발음이야, 진짜.

그런데 여기 탐구 내용을 보게 되면 ㄱ에 비표준 발음하고

ㄴ에 표준 발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떤 방식을 취해주는 거예요?

탈락이 벌어진 다음 ㄹ과 ㄴ이 만났을 때

유음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1, 2번으로 줄여내고.

또 ㄱ의 표준 발음하고 그다음 ㄴ의 비표준 발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애네들은 전부 어떤 현상으로 보는 거죠?

비음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마지막에 ㄷ하고 ㄹ이 전부 다 축약.

거센소리가 일어났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1번이 답이었습시다.

33번,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음운변동 탐구 내용.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까요?

2번 답지가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소나 놓소, 이런 건 똑같은 원리인데

이게 다쏘가 되는 거 거센소리 되기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을 때

ㄱ, ㄷ, ㅂ, ㅈ에 ㅎ 더해지는 경우죠.

ㅎㅅ 줄어서 ㅅ 됐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애는 거센소리도 아니잖아요, 된소리잖아요.

즉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ㅎ은 빠지는 거.

ㅅ은 자체적으로 된소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요.

교체와 축약이 아니라 탈락과 교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4번 가보도록 하죠.

34번, 보기를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국어의 음운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하고 관련된 음운변동이 있다고 이야기해놓고

(가)가 음절의 끝소리, (나)가 자음군 단순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는 결국 자체적으로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애는 교체 현상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 중

하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탈락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놓고 문제를 풀니다.

1번은 꽃힌이예요.

발음 어떻게 됩니까?

꼬친으로 되죠.

애는 (가)나 (나)나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ㄱ하고 ㅇ이 줄어들어서 ㅈ이 되는 축약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 2번, 뭉이는 목씨죠.

그런데 선생님, 이거 어쨌든 (나)에 해당하는 건 탈락이니까 ㅅ이 빠진 건가요?

이거는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ㅅ은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런 규칙이 있어요.

ㅅ이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게 되면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ㅅ이 탈락한 건 아니야.

즉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로 둘 중의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이건 빠진 게 아닌 그냥 연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번도 안 되죠.

다음, 3번 답지 가겠습니다.

비웃, 무슨 현상?

교체 현상 벌어진 거죠.

그러면 애는 (가)에 일어난 일.

(가)라고 해야 되는데 (나)라고 이야기했네요?

틀렸죠.

4번 갑니다.

애 1번이랑 똑같네.

안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애도 자음군 단순화 개념이 아니에요.

빠진 게 아닌 ㅇ하고 ㄱ하고 줄어들어서 만들어진 축약 현상이 벌어진 거죠.

4번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 5번이 답이어야 되는데 보자고요.

애는 지금 1차 과정으로 뭐가 벌어집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즉 두 개 중에 뭐가 빠졌어?

앞에 있는 κ 이 빠지는 (나)가 벌어졌어요.

탈락, 자음군 단순화.

그런데 그다음에 애는 자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음절의 끝소리 교체 현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도 있고 (나)도 있고 하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에 대한 문제까지 딱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품사편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체언, 그다음에 용언.

이런 쪽 해서 다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 기억이 날만한데 하면서 틀린 문제들 분명 있었던 것처럼

체언 쪽 품사,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이 기억날만한데 틀린 문제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다 정리하고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